

현대시의 성 표현과 주제의식

고 현 철*

차 례

- | | |
|-------------------|-----------------------|
| 1. 현대시와 성 표현의 문제 | 4. 매관적 성과 제국주의 비판 |
| 2. 존재의 연속성과 자기 소외 | 5. 성을 통한 통제방식과 이중적 태도 |
| 3. 비인간화된 성과 대결의식 | 6. 성 표현의 양상과 의미 |

1. 현대시와 성 표현의 문제

한국 현대시에서 성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 그리고 성의 표현은 단순히 성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면, 시인들은 어떤 주제의식을 표출하기 위해 시에서 성을 표현할까? 그리고 그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떠한가? 이 글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 해당하는 글이다. '성'의 문제는 인간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 깊이 내재해 있는, 숨길 수 없는 존재론적인 경험의 한 양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의 문학연구에서는 대체로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이 주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시에 대한 연구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이 글은 이러한 그동안의 추세에 대한 한 반성으로도 쓰여지는 것이다. 이 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한국 현대시를 대상으로 하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여 거기에 나타나 있는 성행위의 표현과 이를 통하여 표출하고자 하는 시인의 주제의식을 파악하고 유형화하는 일이다. 여기서 성행위의 표현은, 성적인 낱말의 사용이나 욕설, 성적인 비유 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것은 그동안 현대시에 상당히 수용되어, 대개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의 전략으로 활용되어 온 것으로 여겨진다. 이 글에서 다루려고 하는 성행위의 표현은, 그 범위가 매우 좁은 것으로, 남녀간의 직접적인 성행위를 표현한 것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 글이 성 문제 중에서도 가장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성행위의 표현에만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 특히 서정시의 경우는, 성적 언어의 사용을 넘어서 성행위 자체를 표현한다는 것이 사건과 행위의 표출을 위주로 하는 서사양식 즉 소설에 비해 용이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정시에 성행위를 다루고 있는 시편들이 특히 근래에 들어 상당히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성적 언어의 시적 활용을 넘어서, 성행위 자체를 표현하고 있는 시들을 찬찬히 살펴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둘째, 서정시에 성행위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는, 행위의 사실적인 표출을 지향하는 소설의 리얼리즘적 수법보다는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시 형상화의 다양한 수사학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성행위 표현의 다양성에도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셋째, 서정시에 나타나는 성행위의 표현은 시인의 전략 내지는 주제의식을 적절히 수행하고 표출하기 위해 적극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래서, 어떠한 주제의식을 드러내기 위해 성행위를 표현하느냐, 그리고 그 표현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문제가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성행위의 표현을 시인의 주제의식에 따라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를 위해, 분명한 성행위의 표현을 통해 작품에서 주제의식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시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 세부적인 검토에서는 같은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데에 성행위의 표현이 갖는, 다른 표현보다 차별되는 유용한 점도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성행위의 표현이 변모되어 온 양상과 의미도 아울러 정리토록 한다.

2. 존재의 연속성과 자기 소외

성행위는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욕구이며, 자연적인 본성에 속한다. 이러한 건강한 본성을 유감 없이 드러내고 있는 시작품의 대표적인 것으로 서정주의 「대낮」을 들 수 있다.

따서 먹으면 자는 듯이 죽는다는
붉은 꽃밭새이 길이 있어

햇슈 먹은 듯 취해 나자빠진
능구렁이 같은 등어릿길로,
님은 다라나며 나를 부르고……

강한 향기로 흐르는 커피
두손에 받으며 나는 쫓느니

밤처럼 고요한 끝론 대낮에
우리 둘이는 웬몸이 달어……

- 서정주, 「대낮」 전문

이 시는 현상적 화자인 '나'가 자신의 성 체험의 과정을 들뜬 듯한 격정적인 어조로 진술하고 있다. “밤처럼 고요한” 그러면서도 내적으로는 “끝론” 대낮에 “붉은 꽃밭새이 길” 그 “능구렁이 같은 등어릿길”에서 벌이는 성행위가 그 현장성과 함께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웬몸이 달어”오르는 성의 체험에도 불구하고 성행위 자체가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성행위가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이 진술되어 있을 뿐이다. “따서 먹으면 자는 듯이 죽는다는”이란 시구절은, 성행위가 바로 죽음까지 파고드는 삶이라는 의미를 띠고 있다. 어떤 면에서 성행위는 대상을 범하는, 그래서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을 건드려 와해시키는, 죽음에 가까운 행위인 것이다.¹⁾ 흔히, ‘따먹는다’, ‘죽는다’ 등의 낱말이 성적인 표현으로 사용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따서 먹으면” “자는 듯이 죽는다”는 시구절의 결합은 아주 적절한 것으로 여겨진다. “햇슈(주: 아편) 먹은 듯 취해 나자빠진”이란 구절도 역시 성적인 표현인데, 성

1) 바타이유(조한경 역), 『에로티즘』(민음사, 1989), pp. 9~17

행위가 죽음까지 파고드는 삶이라는 의미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따서 먹으면”, “붉은 꽃밭”, “햇슈”, “능구렁이”, “강한 향기”, “코 피” 등과 같은 보편적인 성적 이미지를 통해 생명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이 작품은 「麥夏」, 「입마춤」 등의 시편들과 더불어, 관능성과 생명성을 드러내고 있는 서정주의 시집 『花蛇集』 중에서도 성행위의 표현이 두드러진 작품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서정주는 1930년대 모더니즘의 도시성과 문명성에 대항하여 생명의식을 고양시킨 시인이다. 이는 1930년대 당대의 문학적 관습에 대한 비판으로도 이해된다.

아무튼, 위에 인용한 「대낮」은 바로 자연적 본성인 성행위를 통해 반문명적인 자연성과 생명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된다. 성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을 억압하거나 왜곡하는 질곡으로부터 인간이 해방되어야 한다는 프로이트의 해방이론은 다름 아닌 문명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문명비판이론인 것이다.²⁾

성행위에 대한 건강한 표현으로 위의 서정주의 「대낮」과 통하지만, 그 지향의미가 조금 다른 대표적인 시작품으로 이수익의 「交感」을 꼽을 수 있다.

두 손이 바쁘게 움직였다.
그러고도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은
얼굴이
대신해 주고 있었다.

얼마디 손가락 사이에서
불타는 언어,
그늘음은 남기지 않은 感情의 完全燃燒,
그 아름답고 황홀한 交感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두 사람의 병어리가
서로
말하고 있을 동안에

- 이수익, 「交感」 전문

위에 인용한 작품은 함축적 시인이 성행위의 존재론적인 의미를 탐구하고

2) 함재봉, 「성해방과 정치해방 : 프로이트에서 푸코까지」, <<사회비평>> 제13호(사회비평사, 1995), pp. 44~45

있는 시이다. 앞에서 살펴본 서정주의 「대낮」이 시적 인물의 자기 체험을 사실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데 반해, 이 작품은 시적 인물에 거리를 두고 있는 함축적 시인이 시적 인물의 성행위의 과정을 비유적인 언어로 진술하고 있다. “두 손”과 “얼굴”은 육체에 대한 환유로서 언어를 대신하고 있다. 즉, 육체의 언어인 것이다. 그래서 이것들은 “불타는 언어”가 되는 것이다. “두 손”과 “얼굴”로 말해지고 있는 발가벗은 육체는 존재의 연속성을 제시하는 교통에 해당한다.³⁾ 이때의 성행위는 존재의 폐쇄성을 부수고 두 존재의 융합을 꾀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다. 그래서 “두 사람의 병어리가 / 서로 말을 하고 있”다는 역설적인 표현이 가능한 것이다. 이 구절은 육체의 언어를 통한 영혼의 교감을 의미한다. “그울음은 남기지 않은 感情의 完全燃燒, / 그 아름답고 황홀한 交感”은 바로 이를 말한다.

성행위가 자연적인 본성과 생명성을 떠나 영혼의 합일이 되는 것이 이상적인 상태이기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상당히 있다. 다음에 인용하는 김수영의 「性」은 진정한 합일에 이르지 못하는 성의 부정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 시작품에 해당한다.

나는 섬찍해서 그전의 둔감한 내 자신으로
다시 돌아간다
隣憫의 순간이다 恍惚의 순간이 아니라
속아 사는 隣憫의 순간이다

나는 이것이 쏟고난 뒤에도 보통때보다
완전히 한참 더 오래 끌다가 쏟았다
한번 더 고비를 넘을 수도 있었는데 그만큼
지독하게 속이면 내가 곧 속고 만다

- 김수영, 「性」 부분

이 시는 앞에 인용한 서정주의 「대낮」과 마찬가지로 현상적 화자인 ‘나’가 바로 자신의 성행위의 체험을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한 성을 그리고 있는 서정주의 「대낮」이 격정적인 어조를 취하고 있는 데 반해, 왜곡된 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김수영의 「性」은 냉정하고 지적인 어조로 성행위의 과정을 성

3) 바타이유(조한경 역), 앞의 책, p. 17

찰하고 분석한다. 현상적 화자인 ‘나’는 여편네와의 성행위가 “恍惚의 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는 “隣欄의 순간”이 되고 만다. 여기서 “恍惚의 순간”은 성행위가 원래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상태 즉, 진정한 합일을 의미하고, “隣欄의 순간”은 현재 자신의 성행위가 처해져 있는 현실적인 상태 즉, 거짓 합일을 의미한다. 이 거짓 합일은 일종의 속임인 것이다. 그래서 “섬찍해서” 자기 “자신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속아 사는”, “지독하게 속이면”이라는 그야말로 연민어린 시적 발언이 자주 나오는 것은 속임에 대한 뚜렷한 자기 인식을 의미한다.

결국 이 작품에 표현되어 있는 성행위는 행위의 주체들이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소외 현상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 자신의 성행위에서 진정한 주체가 되지 못하는, 그래서 스스로를 이방인으로서 경험하는 소외 현상은 “지독하게 속이면 내가 곧 속고 만다”에서 알 수 있듯이, 자기로부터의 소외를 의미하기도 한다.⁴⁾

3. 비인간화된 성과 대결의식

성행위가 진정한 합일이 되지 못하고 거짓 합일이 되는 왜곡된 모습과 부정적인 소외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은 이른바 ‘매춘(賣春)’으로서의 성행위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다. 매춘은 성행위를 일종의 상품으로 매매한다는 점에서, 엄밀한 용어로는, ‘매매춘(賣買春)’이 된다. 즉, 상품화된 성의, 수요와 공급에의 경제적 관계에 따른 매매춘인 것이다.⁵⁾ 따지고 보면, 흔히 사용되어 온 ‘매춘’이라는 용어는 남성 중심의 성차별적인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성의 매매현상이라는 개념으로는 ‘매매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이 매매춘은 추악하고 비인간화된 성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 주고 있다.

4) 정문길 편, 『소외』(문학과지성사, 1984), p. 207

5) 이런 관점에서, ‘매매춘’이란 용어로 접근하고 있는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강영수의 「한국사회의 매매춘에 관한 연구」(이화여대 석사논문, 1989)가 있다.

조국 근대화가 나와 무슨 상관이며
산업발전 지랄발광 나와무슨 상관이리

...(중략)...

수중에 있는 것이 몸밀천뿐이라
식모살이도 이제 싫고

...(중략)...

깜깜절벽 외나무다리에서
검부락지 같은 줄 하나 잡으니
그게 바로 구멍 팔아 밥을 사는 여자 내력이라(허, 좋지)

...(중략)...

쌈구멍가게 차려놓고 하
쌈-할-놈의 세상에서

...(중략)...

어찌하여 구멍밥 먹는 놈은 거룩하고
구멍밥 주는 녀은 갈보가 되는 거여?

...(중략)...

자본주의 꽃이라는 섹스밥이여
허튼 섹스밥이 바로 매춘 내력이로구나

- 고정희, 「몸바쳐 밥을 사는 사람 내력 한마당」 부분

매매춘은 그전부터 존재하였지만, 오늘날과 같은 상업성이 강한 매매춘은 근대 자본주의 제도하에서 널리 퍼져간 것으로 간주된다. 우리 사회도 유신시대의 경제제일주의 정책 이후에 본격적으로 산업화, 자본주의화되어 감에 따라 이 매매춘현상이 일종의 공공연한(?) 은폐된 사회제도로 고착화되어 왔다.

위에 부분적으로 인용된 고정희의 시작품은 매매춘의 성행위 장면을 바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성행위로서의 매매춘에 대해 아주 강력한 시적 발언을 행하고 있다. “자본주의 꽃이라는 섹스밥이여 / 허튼 섹스밥이 바로 매춘 내력이로구나”라는 시구절은 매매춘이 자본주의 이전에도 행하여진 것이지만, 바로 자본주의로 인해서 광범위하게 침투된 것이라는 인식을 잘 보여 준다. 그리고 “조국 근대화가 나와 무슨 상관이며 / 산업발전 지랄발광 나와 무슨 상관이리”라는 구절에서 우리 사회에서 근대화와 산업화의 과정에서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직 매춘을 통해서만 삶을 꾸려갈 수밖에 없는 매춘 여성의⁶⁾ 슬픈 닳두리를 읽을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제는 그 산업화과정에서 뿌리깊은 여성의 차별적 고용정책으로 인해 여성노동력의 상당 부분이 산업현장보다는 매매춘을 비롯한接客서비스 부문으로 쏠리게 하였다. 그래서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산업화와 근대화의 혜택을 적게 누리게 되었으며 “몸밀천”이 삶의 근거가 되는 매춘을 통해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해가는 비극적인 훼손된 삶의 양태를 드러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⁷⁾

이 작품은, 이러한 매춘여성의 삶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전통구비장르인 판소리 가락과 그 연희 상황을 수용하여 육십대 여자의 아니리조 사설 「구멍 팔아 밥을 사는 여자 내력 한 대목」, 오십대 여자의 중모리풍 사설 「구멍밥으로 푸는 똥 내력 두 대목」, 중년 여자의 자진모리풍 사설 「허튼밥으로 푸는 매춘 내력 세 대목」으로 진행시켜 비극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판소리 가락과 연희 상황의 수용은 위에 인용한 부분에서도 “그게 바로 구멍 팔아 밥을 사는 여자 내력이라(허, 좋지)”라는 구절에서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구절은 판소리에서의 아니리의 대사 형식을 수용하여 역설적인 표현으로 가부장 중심적인 사회에서의 매매춘현상에 대한 풍자를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 사용된 시인의 원색적인 언어 “구멍 팔아”, “쌈구멍가게”, “쌈-할-놈의 세상”은 이른바 언어의 원심력으로 공식문화와 지배층 내지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민중언어에 해당한다.⁸⁾ 여기서 지배이데올로기는 천민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가 된다.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을 수행하는 민중언어는 민중의 전통적인 문화 양식인 판소리의 가락과 그 연희 상황과 잘 어울려 이 작품을 민중문학의 정점에 놓게 하는 역할을 한다.

여성 화자의 비장한 어조에 어울리는 페미니즘적인 시각으로 전개되는 이

6) 이와 같은 경우에는 ‘매매춘’이 아니라 ‘매춘’이란 용어를 쓴다. 성의 매매현상의 개념으로는 매매춘이지만, 여성의 입장에서 매춘(賣春)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여성의 입장이라는 말은 전통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근대에는 남성의 입장에서 매춘(賣春)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뒤에 언급될 김영승의 시 「반성 546」은 이러한 양태가 잘 반영되어 있는 작품의 경우가 된다.

7) 등에 편집부 편, 『사랑의 품앗이 그 왜곡된 성』(등에, 1989), pp. 115~116

8) 문희경, 「바흐친의 카니발과 카니발 문학」, <<현대비평과 이론>> 제4호(한신문화사, 1992.가을·겨울)

작품은 성차별의식에 대한 비판도 드러내고 있다. “어찌하여 구멍밥 먹는 놈은 거룩하고 / 구멍밥 주는 년은 갈보가 되는 거여?”라는 구절에서 가장장제에 의한 성차별의식을 비판하는 시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런데, “구멍밥 먹는 놈은 거룩”하다는 표현에서 남녀의 인식에 대한 극단적인 이분법적 태도를 보이는 점은 이 작품의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사회통념상으로는 매춘(賣春)을 한 남성에게 대해서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매춘을 한 남성의 입장에서도 그 행위는 공개되기가 꺼려지는 추악한 행위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시적 화자를 통해 “구멍밥 먹는 놈은 거룩”하다고 한 것은 물론 남녀차별의식을 비판하고자 한 표현이긴 하지만, 극단적인 이분법적 태도에서 나온 그리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이다.

한편, 하종오의 「매춘굿」은 위에 인용한 고정희의 「몸바쳐 밥을 사는 사람 내력 한마당」과 마찬가지로 민중의 전통구비장르의 하나인 굿(엄밀하게 말하면, 문학의 한 갈래인 무가)의 형식을 수용함으로써 민중언어를 통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매매춘현상에 대한 실태를 폭로하며 지배이데올로기에 저항하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음에 인용하는 시작품은 이러한 비인간화된 성행위인 매매춘의 모습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방법론적인 대결의식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돈 많은 유한부인인 너의 개가 되어
 섹스 노리개가 되어
 하룻밤의 지친 육신을 너의 지붕 밑에 뉘고 싶다
 나는 너의 뱃속에 들어가
 너의 기생충이 되고 싶다

- 김영승, 「반성 546」 부분

이 작품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의 의미구조로 되어 있어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겉으로는 현상적 화자가 “……(매춘을 하고) 싶다”라는 소망적인 어조로 자신의 희망사항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 매춘(賣春)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는 근래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된다. 그러나, 속에 숨은 함축적 시인의 의도는 이 ‘매춘’에 대한 대결의식을 나타내는 데 있다. 이는 소망적 자아의 모습이 “너의 개”, “섹스 노리개”, “너의 기생충” 등의 부정적인 어휘로 표출되어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이 작품에서, 이와 같이 아이러니컬한 태도로 성의 비인간화에 대한 대결의식을 드러내는 것은 이 시에서 추출할 수 있는 뒤집기의 방법과도 관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의 매춘의 상황은 대개 남성 중심의, 여성의 성 제공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작품에서는 여성 중심의, 남성의 성 제공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뒤집기는 그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다. 이것은 작품 내에서의 매춘의 성 제공자인 남성의 아이러니컬한 태도 및 어조와 맞물림으로써 이 시가 이면적으로 시인의 진정한 주제의식을 내보이도록 하는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김영승의 「반성 546」은 성의 상품화인 매매춘현상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과 대결의식을 아이러니라는 이중의 의미 구조와 뒤집기의 방법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된다. 이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 김영승의 시집 『반성』은 그 전체가 대부분 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일종의 위악적인 태도로 비판과 대결의 주제의식을 이면에서 수행하고 있는 시집이다.

한편,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육체를 도구화하고 성을 상품화한 매춘을 통해서 살아가는 버림받은 여성들의 처절한 삶의 모습들을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는 시집으로, 실제 매춘녀 출신의 시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타계한 이연주의 시집 『매음녀가 있는 밤의 시장』이 있다. 매매춘의 비인간화된 모습은 이 시집 곳곳에 산재해 있는 부정적이고 어두운 이미지들을 통해 섬찍하지만 강렬하게 표현되어 있다.

4. 매관적 성과 제국주의 비판

성행위, 특히 비인간화된 성행위인 매매춘은 이른바 기지촌이나 기생관판을 통해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주의적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사실, 매매춘이 오늘날처럼 복잡미묘하게 구조화된 모습을 띠게 된 데에는 일본제국주의의 침투와 미국군정의 영향이 상당한 단서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된다.⁹⁾ 따라서

9) 박종성, 『한국의 매춘』(인간사랑, 1994), p. 62

이러한 매매춘을 통해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것도 현대시의 일정한 흐름을 이루고 있는 현상이다.

독한 불의 밤을 지나 재의 새벽,
빈 양주병 곁에서 잠이 깬다. 미스 빼주는
형클어진 머리칼을 미국식으로 쓰옥,
쓸어올린다. 화장이 군데군데 지워져

...(중략)...

잠시 꿈꾸는 저지 곧 정신차리면 그만이지 누가 알기나 해? 미국놈들은 한국년들을 좋아하니 까우린 비싸지 않거든 난 몸이 그들과 늘 깊이 닿아 있지 그러니 까난누구보다도 미국을 잘 이해하지 정말이지 난 그들의 애인이니 까
그녀는 잘난 미군이나 하나 잘 낚아
한탕 할 날을 꿈꾼다. 잘 하면 미국행 비행기도
탈 수 있을 거야. 그 꿈이 담배를 피워 물게 한다.

...(중략)...

미스 빼주는 길 건너 소리사에서 흘러나오는
유행가 가락에 맞춰 꺾을 씹으며, 미 팔군 후문의
담장 사이로, 전혀 새로운 세계를 드러내듯이
미끈한 허리를 쓸쩍 열어 보인다.

- 이하서, 「아메리카」 부분

위에 인용한 시작품은 비록 기지촌 여성을 통해 성의 문제를 다룬 것이라 할지라도, 그 지향의미가 겉으로 뚜렷하게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드러나고 있으므로 성행위가 직접 표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기지촌에서의 매매춘의 정황만 서사적인 행위구조의 수용에 의해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이 작품의 시적 인물은 기지촌의 양공주인 미스 빼주이다. 함축적 시인은 이 시적 인물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 시는 여기에 함축적 시인의 비판적 시각이 결합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시적 인물인 미스 빼주는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로 매춘행위를 하면서 미국에 대한 지극한 환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시의 인용 부분 중에서 그녀가 “머리칼을 미국식으로 쓸어올리기도 하고 “미군이나 하나 잘 낚아 / 한탕할 날을” 꿈꾸고 있다는 데서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인용시에서 띄어쓰기 없이 산문으로 기술되어 있는 중간 부분은 함축적 시인의

시점이 아닌 시적 인물인 미스 빼주의 시점으로 자기 독백을 행하고 있는 부분이다. 형식이 현실의 문법구조를 벗어나 있는 것처럼, 여기에 드러나 있는 미스 빼주의 의식은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이 부분은 미스 빼주의 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아메리카에 대한 환상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그녀는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척박한 현실을 “잠시꿈꾸는” 것으로 치부한다. 그리고 그녀가 새롭게 꾸는 꿈, 그 풍요와 상승의 환상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정이 드러난다. 시적 인물인 미스 빼주는, “난몸이그들과늘깊이닿아있지”, “난누구보다도미국을잘이해하지”라는 독백에서 알 수 있듯이 이른바 아메리칸 드림을 스스로 내면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늘 겪는 일상사임에도 불구하고, 허황된 아메리칸 드림으로 인하여 “전혀 새로운 세계를 드러내듯이 / 미끈한 허리를 쓸쩍 열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을 쓴 시인 이하석이 시적 인물인 미스 빼주가 지닌 내면화된 아메리칸 드림의 허황성을 폭로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제국주의 비판의 훌륭한 전략이 되고 있다. 이 내면화된 아메리칸 드림은, 사실 미군이 식민화된 기지촌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한 방식에 불과한 것이다. 미스 빼주가 현실을 꿈으로, 꿈을 현실로 바꾸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고 꿈은 꿈이다. 시적 인물인 미스 빼주가 갖는 환상은 함축적 시인의 객관적인 시각에 의해 비판 받게 된다. “미국식”, “잘난 미군”, “한탕” 등의 시어에서 시인의 이 비판의식을 읽을 수 있다. 시인의 이러한 비판의식은 바로 반제국주의와 통하게 된다. 정대호의 「양공주 케리」와 김경미의 「기지촌 조국」 같은 시작품들도 위에 인용한 이하석의 「아메리카」와 동궐에 놓이는, 매매춘을 통해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정신을 드러내고 있는 대표적인 것에 해당한다. 성행위의 표현을 통한 반제국주의의 주제의식은 다음과 같은 풍자성 짙은 작품에서 더욱 극대화된다.

치마 벗고, 훈도시 차고, 젓통 내놓고 갓을 쓰고
 陰毛 뿔아 그 수대로 돌아가며 술마시고
 계집이 사내옷 입고
 사내가 계집옷 입고
 미치고 초치고 환장해서 춤추고
 악쓰고 소리치고 아우성치고 물어뜯고 꼬집고 할퀴고 치고 차고 꿰고 밟
 고 벗기고 주무르고 조지고 올라 타고 지지누르고

아리랑 아리리요
 쪼이나 쪼이나 아리리요
 도꼬샤 쪼이나
 쪼이나 도꼬샤
 아리랑 쪼이나 아리리요 도꼬샤
 계집들이 달려들어 三寸待란 놈 옷을 훌랑 벗겨버리고 쪼이나 아리랑 아
 리리요 쪼이나
 이년이 여기 만지고 저년이 저기 만지고
 女大生같은 妓生이 아리랑! 기생같은 女大生이 쪼이나!
 씻겨주고 닦아주고
 쓰다듬고 어루만지고
 비벼주고 주물러주고 핥아주고 빨아주고
 쪼이나 쪼이나 아리랑 도꼬샤 아리리요 쪼이나 도꼬샤
 발가락을 입으로 빨아주니 미쳐
 “헤헤헤 울산은 모두 내꺼!”
 더 높은 데로 가자!
 자지를 빨아주니 눈깔이 뒤집혀지며
 “후후후 제주도는 모두 내꺼!”
 더욱 더욱 더욱 더 높은 데로 가자!

- 김지하, 「똥바다」 부분

위에 부분적으로 인용한 김지하의 「똥바다」는, 전통적인 장르의 개념으로
 는, 이야기를 지닌 서사적 서정시에 해당하는 상당히 긴 작품이다. 그래서 주
 제와 관련하여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작품의 서사단락을 구분하여 보이
 기로 한다.

<서사단락> 외화 ; 1). 옛날에 ‘자업자득(自業自得), 영악한 놈 제 무덤 제
 가 판다’는 말이 있다. / 내화 ; 2). 일본국에 분삼촌대(糞三寸待)라는 왜놈이
 살고 있다. 3). 분삼촌대의 볼품 없는 인물 묘사와 똥과 관련되어 조선하고
 원수된 집안내력이 제시된다. 4). 국책으로, 금분(禁糞)법, 금분령이 내려지는
 데, 분삼촌대에겐 방귀도 금지된다. 5). 분삼촌대는 타도선인(打倒鮮人)에 따
 라 조선정벌 연습을 하고 조선에 온다. 6). 금조야(金鳥也), 권조야(權鳥也),
 무조야(武鳥也)가 분삼촌대를 환대하고, 경제투자와 정치협력 그리고 안보에
 대해 구걸한다. 7). 친일파 3인, 분삼촌대를 한일친선차 기생집에 모신다. 8).
 기생들, 분삼촌대를 살살 녹인다. 9). 분삼촌대, 나오는 똥을 더 이상 참지 못
 하고 이순신동상 머리를 밟고 똥을 마음껏 싸다. 10). 친일파 3인과 기생들,

분삼촌대의 똥을 찬양하면서 아침한다. 11). 학생, 공돌이, 농사꾼, 날품팔이들이 열심히 똥을 치우며, 분삼촌대에게 빨리 꺼지라고 한다. 12). 봉새라고 뽑내던 분삼촌대, 날아가던 참새 똥을 피하다가 이순신동상에서 떨어져 죽는다. / 외화 ; 13). 멸망이 매혹(魅惑)인 곳에 똥의 비밀이 있다.

위의 서사단락 구분에서 우리는 이 작품이 반일과 반제국주의적인 주제를 지닌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서사단락 구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외화 - 내화 - 외화'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화자와 인물간의 자유로운 드나듦, 울분과 산문의 조화, 유식한 문자와 상스러운 말의 혼용, 반복과 병치 등의 판소리적 문체를 보이고 있다. '외화 - 내화 - 외화'의 구조도 사실은 판소리에서 흔히 채용하는 구조인 것이다.¹⁰⁾ 이 작품은 이와 같이 판소리의 틀을 활용함으로써 민중문학적 성격을 적극 부각시키고 있다.

김지하의 시작품 「똥바다」에서 위에 인용한 부분은 서사단락 구분 중에서 8)번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친일파 3인 금조야(金鳥也), 권조야(權鳥也), 무조야(武鳥也)는 일본인 분삼촌대(糞三寸待)를 기생집에 모시는데, 기생들이 분삼촌대를 살살 녹이는 장면이다. 여기에 나오는 '금조야'는 친일기업인을, '권조야'는 친일권력층을, 그리고 '무조야'는 친일의 군지도자를 의미한다. 그래서 1970년대 당시에 경제와 정치 그리고 군사의 각 부분이 일본에 기대어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다. 아무튼, 인용한 부분에서는 매판자본에 근거한 경제제일주의적 개발논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정책적인 매매춘인 기생관광의 실태가 단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사실, 유신시대에 널리 성행한 기생관광은, 일본이 경제적인 침략으로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함으로써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우리 여성의 성적 유린의 대가로 우리에게 쥐어주는 꼴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구조의 취약성에 기인한 대일무역적자의 폭을 우리 여성의 성과 바뻐치기 하도록 조장하는 권력층과 기업가들의 반민족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기생관광은 날로 번창하게 되었던 것이다.¹¹⁾

김지하의 「똥바다」는 앞의 이화석의 「아메리카」와는 달리 세밀하게 성행위

10)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현철, 「한국 현대시의 장르 패로디 연구 - 담론 양상을 중심으로」(부산대학교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8), pp. 98~108 참고 바람

11) 등에 편집부 편, 앞의 책, pp. 106~108

를 묘사하고 원색적인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언어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원심력의 언어 즉, 민중언어인 것이다. 이 작품은 민중언어와 그 언어의 원심력으로 매춘관광이나 일삼는 일본인과 일본에 구걸하고 아침하는 친일관료와 기업인과 같은 지배층에 대한 신랄한 풍자를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기생관광에 앞장서는 친일관료와 기업인들의 성행위를 폭로함으로써 지배이데올로기를 전략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셈이다. 판소리에서와 마찬가지로 인물과 그 행위가 회화화됨으로써 지배층에 대한 풍자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벌이는 성행위 자체도 “陰毛 뽑아 그 수대로 돌아가며 술마시고 / 계집이 사내옷 입고 / 사내가 계집옷 입고”와 같이 도착적인 것임이 폭로되고 있다.

위의 인용 부분에서, “아리랑 쪼이나 아라리요 도꼬샤”라는 시구절은 우리말과 일본어의 혼합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면, 우리의 문화 내지 경제적인 체제가 일본에 예속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표현이 된다. 여기서도, 이 작품은 성행위를 통해서 지배층에 대한 신랄한 풍자 뿐만 아니라 나아가 반제국주의 내지 탈식민주의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탈식민주의란 식민지국가가 제국주의에 의한 정치적 예속 상태에서 해방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문화적 혹은 경제적 제국주의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현실을 직시하고 제국주의적 억압구조로부터의 해방을 지향하는 문학 내지 문화운동을 가리킨다.

한국 현대시에서 반제국주의 내지 탈식민지적 성향의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작품들은 일정한 흐름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현대시에서 노골적으로 이루어진 성행위의 표현을 통해 우리와 일본 혹은 미국과의 숨겨진 추악한 관계와 일본 혹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성은 효과적으로 폭로되고 있는 것이다. 김지하의 「똥바다」에 나오는 “자지를 빨아주니 눈깔이 뒤집혀지며 / 후후후 제주도는 모두 내꺼!”라는 시구절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만큼 성행위의 표현은 제국주의를 풍자, 비판하기 위한 훌륭한 시적 방법이 되고 있는 것이다.

5. 성을 통한 통제방식과 이중적 태도

제국주의와 결부된 매매춘이 왜곡되고 비인간적인 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자본주의가 더욱 발달하여 나타나고 있는 일상화된 성의 탐닉 현상도 상당히 도구화되고 왜곡된 성문화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간밤에도 그는 외국 바이어들을 만났고, “그년”들을 대주고 그도 “그년들 중의 한년”의 그것을 주물럭거리고 집으로 와서 또 아내의 그것을 더욱 힘차게, 더욱 전투적이고 더욱 야만적으로, 주물러 주었다. 이것은 그의 수법이다. 이 수법을 보성물산주식회사 차장 장만섭 씨의 아내 김민자 씨(31세, 주부, 강남구 반포동 주공아파트 11325동 5502호)가 김새철키 없지만, 혹은 컷 으면서도 모른체 해 주는 김민자 씨의 한 수 위인 수법에 그의 그것이, 그가 즐겨 쓰는 말로, “가꾸로 물린 것”인지도 모르지만, 그가 그의 아내 배 위에서, “그년”과 놀아난 “표”를 지우려 하면 할수록, 보성물산주식회사 차장 장만섭 씨는 영동의 룬싸롱 “겨울바다”(제목이 참 고상하지. 시적이야. 그지?)의 미스퀸가 찬가 하는 “그년”을 더욱 더 실감으로 만지고 있는 것이다.

- 황지우, 「徐伐, 셔벌, 셔벌, 서울, SEOUL」 부분

인용시는 서사적인 행위를 대폭 수용하고 있는 작품인데, 이는 산문시라는 형식면에서 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 시적 인물인 장만섭씨의 행위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함축적 시인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장만섭씨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진술해 나가고 있다. “외국 바이어들을” 자주 만나서 사업 활동을 해야 하는 다국적기업의 후기산업사회는, ““그년”들을 대주고 그도 “그년들 중의 한년”의 그것을 주물럭”거릴 만큼 성문화가 일상화되어 있는 사회이다. 그리고 이 구절은 기업의 이른바 접대문화가 성산업을 확산시키게 되는 한 요소가 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경제적 이득이 다른 모든 이념적 요소보다 우위에 있는 후기산업사회는 출산으로서의 성과 쾌락으로서의 성이 광범위하게 분리된 현상을 보이는 사회이고, 또 쾌락으로서의 성이 아주 중요한 상품이 되는 사회이다.¹²⁾ 이러한 사회에서 천박한 자본의 물결에 휩쓸리고 있는 장만섭씨와 그의 아내의 성행위는 더 이상 사랑에 바탕을 둔 진

12) 조혜정, 「자본주의와 성문화」, 『탈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글 읽기와 삶 읽기 3』 (또하나의 문화, 1994), pp. 71~76

정한 합일을 이루는 성이 아닌 것이다. 이들은 오직 쾌락으로서의 성행위만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그려질 뿐이다. 이는 “그년”과 놀아난 “표”를 지우려 하는 장만섭씨나, “모른체해 주는” 그의 아내를 통해서 극명화된다. 이러한 성행위는 서로 속이는 비인격적인 성에 불과한 것이다. 여기서 서로를 도구로서 이용하는 소외현상이 드러나고 있다.¹³⁾ 그리고 “아내의 배 위에서” 다른 여자를 실감으로 만지는 장만섭씨는 자신의 성행위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미스 쉐가 찬가하는”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姓)도 모르고 나누는 성행위는 도구화되고 비인간화된 성의 단면을 보여준다. 그만큼 성은 세속화되고 타락되어 있다. 자본주의의 정점인 후기산업사회는 또 다른 측면에서 성의 비인간화된 모습을 드러낸다.

장작불 타오르는 폐차 옆,
 백마에게 짓눌린 애마부인의 교성 디퍼 디퍼!
 깊숙이, 더 깊숙이라 정확히 번역된 한글 자막은
 울드팬에게, 그 옛날 청계천 구루마 장사가 팔았던
 빨간책, 마분지 소설의 추억을 한아름 선사한다
 백마 타고 싶은 사람들과 마분지 소설의 독자만 들어도
 거뜬히 십만이 넘는,
 치밀하게 계산된 영화

...(중략)...

포르노엔 지배자들이 살포하는
 포르말린 냄새가 배어 있다
 심야다방 만화가게마다 절찬리에 상영중인
 깊이 더 깊이, 피스톤 신화
 단속반이 뜨면 헉헉대는 화면은 짹째
 보도본부24시로 바뀌지
 오늘도 반복되고 있을 포르노와 뉴스
 그 총들의 몽타아즈

가만히 집에 있는 사람들을
 기어이 스카라에까지 끌어내
 기어이 헛줄 끌리게 해놓고 보너스로 에펠탑
 몽마르트 언덕까지 구경시켜주는 파리에마

13) 정문길 편, 앞의 책, p. 207

면죄부까지 에어메일로 부쳐준 파리아마 그러나
미안하지만, 관객들은 용서받을 일이 없다
저 인산인해의, 관객들은 결코 잘못이 없다

- 유하, 「파리아마 - 영화사회학」 부분

후기산업사회는 성산업이 판을 치는 사회이다. 위에 인용한 작품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시는,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대중문화인 영화, 그것도 포르노그라피와 결합함으로써 함축적 시인이 적나라하고 세밀하게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는 작품이다. 대중문화와의 결합은 고급문화 / 저급문화의 구분을 무화시키려는 이른바 포스트모더니즘의 일부 논리에 맞닿아 있다. 또 포스트모더니즘에서 문학의 언어는 다른 무엇보다도 욕망의 언어인 것처럼, 이 작품은 바로 성적 욕망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작품에 수용되어 있는 「파리아마」라는 영화는 “치밀하게 계산된” 자본주의 성문화산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포르노의 소박한 형태인 “마분지 소설의 추억”은 이젠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비롯한 포르노영화는 쾌락으로서의 성을 상품화하여 대중화시키는 데 일조를 한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에서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자본과 성의 친밀한 상호교류를 엿볼 수 있다. 천박한 자본주의는 성의 세속화를 낳았고, 성의 세속화는 포르노그라피의 엄청난 성장을 가져오게 한다.¹⁴⁾ 그리고 포르노그라피를 통해서 성의 세속화는 더욱 가속화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마르쿠제는, 성의 만연은 성적 쾌락의 상품화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이는 진정한 성의 해방이 아니라 오히려 성을 억압하고 왜곡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¹⁵⁾ 사실 포르노그라피는, 성행위를 상대화하는 대화적 문제의식이 결핍된 채 단절된 한 개인이 성에 대한 독백적 환상을 추구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¹⁶⁾ 성의 환상은 실재하는 성의 현상이 아니므로 성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져오게 하고 이는 일종의 억압적인 요소가 된다. 이 작품에 보이는 시구절 “깊이 더 깊이, 피스톤 신화”, “헛줄”은 바로

14) 제프리 워스(서동진·채규형 역), 『섹슈얼리티 : 성의 정치』(현실문화연구, 1994), pp. 134~135

15) 황정미, 「섹슈얼리티의 정치」, <<사회비평>> 제13호, p. 125

16) 윤혜준, 「포르노에도 텍스트가 있는가」, <<사회비평>> 제13호, pp. 100~101

이를 단적으로 지적하는 말이 된다. 후기산업사회는, 푸코가 적절히 언급했듯이, 폭력에 의해 권력을 행사하는 사회가 아니라 욕망, 특히 성적 욕망을 확산시킴으로써 권력을 행사하고 대중을 통제하는 사회이다. “지배자들”은 암암리에 “포르노”를 전파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성적 욕망의 장치’라는 말은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이 된다.¹⁷⁾ 그래서, 포르노그래피를 보려고 몰려온 “인산인해의 관객들은” 일상화된 성의 환상을 좇는, 또 성적 환상에 빠질수록 성적 강박관념을 내면화하게 되는, 그래서 지배자의 의도에 자신도 모르게 몸을 맡기는 희생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시인은 “저 인산인해의, 관객들은 결코 잘못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개개인들이 자신들의 성도 스스로 주체화해 나가야 하는 존재들이다. 주체 정립이 ‘인간화’ 의미의 한 측면인 것이다.

그런데, 이 작품을 쓴 시인 유하는 이 시에 수용되어 있는 「파리애마」에 대해 비판만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시작품에서 아주 세밀하게 성행위를 묘사할 만큼 어떤 면에서는 이를 즐기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김현이 적절하게 밝혀 놓았듯이, 유하는 대중문화의 소비자로서 대중문화의 중독자이면서 반성자인 것이다.¹⁸⁾ 이는 유하의 시적 태도가 이른바 인사이드아웃사이드(inside-outsider)로서, 이중적임을 의미한다.

한편, 시작품 내에서의 “포르노와 뉴스”의 “몽타아즈”는 포르노를 기를 쓰고 몰래 보려는 사람들과 이를 단속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드러낸 것이긴 하지만, 포스트모더니즘 수법을 시적 현실에까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허구인 영상과 현실 즉, 환상인 포르노와 실재인 뉴스의 동시성과 경계 없음을 통해 성의 환상이 일상에 만연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효과도 있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의 욕망과 환상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시집을 꼽아본다면, 김언희의 시집 『트렁크』를 들 수

17) 미셸 푸코<이규현 역>, 성의 역사 제1권 -삶의 의지(나남, 1990), 91~144쪽
 푸코에 따르면, ‘성적 욕망의 장치’는 부르조아(지배층)가 자기 계층의 육체를 확립하고, 또 이를 통해 자기들의 영역과 주도권을 중대해 온 것이다. 그런데, 이를 프롤레타리아(피지배층)가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부르조아 권력에 지배되고 또 통제받게 되는 것이다.

18) 김현, 「키치 비판의 의미」, 『말들의 풍경』(문학과지성사, 1990)

있다. 시집 전체가 성의 상상력으로만 이루어진 특이한 시집에 해당한다.

한편 앞에서, 판소리와 같은 민중문화와 결합되어 있는 성행위의 표현도 아주 적나라하다고 했는데, 이는 언어의 원심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지배층에 대한 풍자와 반제국주의적 성격의 표출 등 지배이데올로기 비판을 전략적으로 수행하는 성의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본문화와 결합되어 있는 노골적인 성행위의 표현은 후기산업사회의 타락한 삶의 모습과 성적 욕망에 의해 지배이데올로기에 종속되어 있는 왜곡된 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대시를 읽을 때 그 표면에 나타나 있는 성행위의 표현만을 살펴서는 안 된다. 현대시에서는, 표면에 묘사되어 있는 성행위의 표현은 비슷할지라도 이를 통해 수행하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다른 것이다. 그래서 그 이면에 깔려있는 주제 의식과의 관련하여서 성행위의 표현을 읽어야 한다. 지금까지 본론에서, 주제 의식의 유형학을 통해 성행위의 표현 문제를 찬찬히 더듬어 본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6. 성 표현의 양상과 의미

현대시에 나타난 성행위의 표현과 그 밑에 깔려있는 주제 의식의 문제를 살펴본 이 글을 맺으면서, 성 표현의 양상을 나누어 그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성행위를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서정시들은 대체로 서사적인 행위의 요소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수용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서정시의 경향을 벗어나는 모습을 띠기도 한다. 그래서, 대개 시들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현대시에 표현되어 있는 성행위는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부정적인 모습을 띠는 경우가 많다. 이는 속임과 소외현상, 비인간화와 소외의 극단적 양상이 되는 매매춘 그리고 매매춘과 기지촌·기생관광이 결부되어 드러내는 식민지적인 모습 등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또한 자본주의의 상업성과 결부되어서

는 도구화되고 타락한 성의 양태로 드러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성행위의 부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작품들은 시인의 의도에 따라 이에 대한 비판과 대결의식을 밑바탕에 깔고 있기도 한 것이다.

셋째, 성행위의 표현과 그 밑에 깔려있는 주제의식은 서로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아주 세밀한 부분에게까지 침투되어 있다. 가령, 존재의 연속성과 영혼의 교감으로서의 성행위는 이수익의 「交感」과 같이 비유적인 언어로 표출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시적 화자가 다같이 자신의 성행위의 체험을 진술하고 있는 서정주의 「대낮」과 김수영의 「性」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면, 이 두 작품은 시적 화자의 어조와 태도면에서 확연히 다른 것이다. 「대낮」은 걱정적인 어조를 통하여 자연성과 생명성의 건강한 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에 반해, 「性」은 냉정하고 지적인 어조로 자신의 성이 속임과 소외의 모습을 띠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현대시에 묘사되어 있는 성행위는 어떠한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데에는 상당히 효과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김지하의 「똥바다」와 같이 제국주의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할 경우, 다른 어떤 표현보다도 부정적인 성행위의 상세한 묘사를 통하여 우리와 일본 혹은 미국의 숨겨진 추악한 관계, 일본과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성이 효과적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이는, 반제국주의의 훌륭한 하나의 전략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현대시에 나타나는 성행위의 표현은 근래에 올수록 직접적이고 노골화되어 있는 모습을 드러낸다. 그런데, 그 양상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70·80년대에는 김지하와 고정희의 시작품에서 본 바와 같이, 민중문화와 결합함으로써 민중언어의 원심력으로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고, 80년대 후반·90년대 전반에서는 황지우와 유하의 시작품에서 본 바와 같이, 자본문화와 결합함으로써 후기산업사회의 타락된 모습과 성적 욕망에 의해 지배를 받는 종속적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현대문학과 성의 문제는 별로 연구되지 않은 영역이다. 특히 시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엄연히 행해지는 성, 더구나 근래에 시에서도 많이 묘사되어 있는 성은 이제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되는 연구영역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앞으로의 관심과 연구성과를 기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시자료

- 고정희,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창작과비평사, 1992)
김수영, 『김수영 전집 1 - 시』(민음사, 1981)
김영승, 『반성』(민음사, 1987)
김지하, 『오적 - 담시집』(결정본 김지하 시전집 3: 술, 1993)
서정주, 『미당 서정주 시전집』(민음사, 1983)
유 하, 『武林일기』(세계사, 1995)
이수익, 『슬픔의 핵』(고려원, 1983)
임현영·이영진 편, 『아메리카 동바다 - 반의세·민족자주화 시선집』(인동, 1988)
황지우, 『새들도 世上을 뜨는구나』(문학과지성사, 1983)

참고논저

- 강영수, 『한국사회의 매매춘에 관한 연구』(이화여대 석사논문, 1989)
고현철, 『한국 현대시의 장르 패로디 연구 - 담론 양상을 중심으로』(부산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8)
김 현, 『키치 비판의 의미』, 『말들의 풍경』(문학과지성사, 1990) 등에 편집부 편, 『사랑의 품앗이 그 왜곡된 성』(등에, 1989)
문희경, 『바흐친의 카니발과 카니발 문학』, <<현대비평과 이론>> 제4호(한신문화사, 1992.가을·겨울)
박종성, 『한국의 매춘』(인간사랑, 1994)
윤혜순, 『포르노에도 텍스트가 있는가』, <<사회비평>> 제13호(사회비평사, 1995)
정문길 편, 『소외』(문학과지성사, 1984)
조혜정, 『자본주의와 성문화』, 『탈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글읽기와 삶 읽기 3』

(또하나의 문화, 1994)

함재봉, 「성해방과 정치해방: 프로이트에서 푸코까지」, <<사회비평>> 제13호
(사회비평사, 1995)

제프리 워스(서동진·채규형 역), 『섹슈얼리티:성의 정치』(현실문화연구, 1994)

미셸 푸코(이규현 역), 『성의 역사 제1권 - 앞의 의지』(나남, 1990)

바타이유(조한경 역), 『에로티즘』(민음사, 1989)

황정미, 「섹슈얼리티의 정치」, <<사회비평>> 제13호(사회비평사, 1995)